



익산시, 2024년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익산시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5일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성자) 주관으로 여성지도자, 여성단체 회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합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로 문을 열었으며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슬로건을 제창하며 성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 실천을 다짐했다. 이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박효성 강사가 '관계'를 주제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익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시 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의 부스가 운영됐다. 여성의 취·창업과 여성친화 일터 조성에 대해 안내하고 아이 돌봄, 다문화 사업, 가정 상담 등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강성자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진안군,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진안군은 5일 2024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진안문화체육회관에서 각 분야 여성 지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진안군 여성색소폰앙상블팀의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식, 유공자표창,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영상 시청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여성권의 신장과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에는 △진안군 정진숙, 문남희, △용담면 국정순, △안천면 최순자, △동향면 정모화, △상전면 박상금, △백운면 신명숙, △성수면 정종이, △마령면 전정자, △부귀면 유영순, △정천면 최영애, △주천면 이영자 총 12명의 유공자가 선정됐다.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소비자 교육중앙회 진안군지회에게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기념식과 함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축하공연을 준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화합 한마당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미희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들의 섬세함과 감성을 사회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구현하여 살기 좋은 진안군이 되도록 진안군 여성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시 정신건강센터, '마음치유, 불처럼' 큰 호응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 중인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불처럼'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감과 자살 사고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문제를 극복해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성인, 회복지원사업 클럽하우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참여자 12명을 선정했다. 프로그램 기획·운영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심리치료 연구소 맡아 2명의 예술심리치료 전문가가 참여해 체계적인 치유를 도모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쌍화차커뮤니티라운지 2층에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음악과 미술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고령권세 별세 = 별세일: 5일, 빈소: 부안호남장례식장 3분향소, 발인: 7일 오전 8시, 장지: 전주 송화원 전주시립추모관

우수 연구자 지원 · 약학대학 인프라 구축 한마음

전북대 황기준 명예교수 · 약대 교수진, 1억5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황기준 명예교수와 약학대학 교수들이 대학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1억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지난 3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따르면 약학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들의 연구 역량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추가로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 이에 전북대는 황 명예교수의 뜻에 따라 이 기금을 '나정 황기준 연구발전기금'으로 명명하고, 신약개발이 나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 연구자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약학대학 교수진들의 기부 기부도 이어졌다. 이날 배은주, 채한정, 박애경, 심현주, 김훈주 교수 등은 각각 1천 만 원씩의 발전기금을 출연했다.

이 기금은 약학대학 지정자금으로, 우수 인재양성과 학생들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약대 교수진은 지난해 11월 4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바 있다. 황 명예교수는 "평소 신약개발과 기초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이러한 신념을 실천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전북대 약학대학이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의 30년 숙원이던 약학대학 유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기준 명예교수님과 약학대학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익산시립무용단 고경보 단원, 쓰러진 시민 도와

익산시립무용단 단원의 재빠른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행인의 생명을 건지게 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경보 단원

5일 익산시에 따르면 고경보 익산시립무용단 단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0분께 동산동 유천생태습지공원에서 오토바이에 깔려 쓰러져 있는 시민을 발견했다. 공연을 앞두고 체력단련 중이던 고경보 단원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갔다. 오토바이를 치우고 남성의 상태를 살핀 후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했다. 고 단원은 군 생활 중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떠올렸다. 기억을 되새기며 쓰러진 시민의 헬멧을 벗기고 기도를 확보한 후 5분 가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잠시 후 멈춰던 호흡이 돌아와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고경보 단원은 주변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민에게 말을 걸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어 119구급대에게 시민을 인계하고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왔다. 고경보 단원은 익산시립예술단 대표 브랜드 공연인 'WEST&EAST(서쪽남자&동쪽여자)' 서 주인공 무용역을, 오는 10월 11일 제46회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환생'에서 주연을 맡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 '대강 가이버 출동 사업' 주거환경 개선

남원시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권기환)는 지난 4일 '대강 가이버 출동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 사업은 올해 대강면 6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집 청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3개 마을 3가구를 지원, 3세대는 모두 '면장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발굴된 세대이며, 3가구 중 2가구는 이미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9월 한달간 자기 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9월 2일 오전에는 남원의료원과 함께 시청 민원실에서 20~30대 시청 직원 및 방문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실을 실시하였다. 남원의료원 의료진은 인바디 측정 및 상담과 남원시보건소 방문상담 인력인 실시하는 간이심방세음,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등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활동으로 자기혈관에 대한 건강상태를 알도록 함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오늘건강과 '워크ON' APP을 활용한 커뮤니티 이벤트 △양성평등주간,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연계하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심상생생 건강교실, 건강 특목 건강 100세 등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추석 맞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등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희연 방문보건팀장은 "앞으로도 청·장년층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필요성의 인식을 형성하는 한편,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관리에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 회원·임원 대상 환경교육 실시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대표 우태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회원,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센터 3층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는 관내에 150만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용담댐이 자리 잡고 있어 강과 하천 살리기 운동 등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환경 단체이다. 특히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변화를 이끄는 환경교육, 정기적인 수변 공간 정화활동, 하천 수질감시·주변 환경 정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물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날 임원 40여명은 최혜경 전문 강사가 실시한 공기정화수경식물을 식재하는 환경교육 체험을 해보고, 수업 마무리에는 다가오는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분리배출 및 정비구 사용 등 환경보호 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태만 대표는 "깨끗한 환경과 소중한 자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쓰레기, 분리배출 등 모두가 함께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하나님의교회 선교협회, 향교동에 생필품 기탁

남원시 향교동 관계자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지난 4일 관내 이웃들을 위해 식료품 꾸러미 20상자(100만원 상당)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선교협회(목사 최종)는 향교동 관내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는 행복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이 남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듬으며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 주민자치위, '우리동네 뽐내기 경연대회'

고창군은 주민자치위원회가 5일 주민자치위원 및 군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제5회 우리동네 뽐내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행사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실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읍·면을 대표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농악, 요가, 악기연주 등 그동안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경연대회를 우수한 문화 프로그램의 공유·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주관한 '2024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사례중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표가 이뤄졌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도·시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과 함께 세외수입의 제도적 개선과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어 장기 미제 숙원과제로 남아있던 옛 동진강 휴게소를 공모사업을 통해 '지평선세마루 스마트 복합힐터'로 재탄생시키며 연 7천2백만원의 임대수입을 창출, 세외수입 증대 효과 및 신규 수입원 발굴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법무공단 전북, 'THE 안전한 대한민국' 5곳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일 글로벌(대표 공현철), 인베스트(대표 곽현상), 에스아이(대표 배성훈), 메리폴드(대표 유선자), (유)제이디(대표 유선자), (유)신흥(대표 유선자)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72, 73, 74, 75, 76, 77호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부협의회(회장 한명옥)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흥 유선자 대표는 "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경주 지부장은 "정기후원을 약속해 주신 유선자, 공현철, 곽현상, 배성훈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